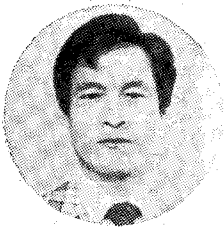


敬農과 歸農의 轉機되기를

□□□□의 의의



김 용 익 <농민신문사 기획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온 農事는 중요시하지만 農民를 천시하는 뿌리깊은 사상을 깨끗히 씻어내고 한방울의 땀과 한톨의 쌀을 소중히 하는 국민정신의 배양이다.

해마다 신록이 우거지는 6월이 되면 권농일을 맞게된다.

일찌기 우리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 생사존망의 으뜸인 식량을 만들어내는 농사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의 박력거세왕이 왕비를 데리고 6부를 순시하면서 잡업을 권하고 독려했으며 고구려에

서는 평원왕 25년에 사신을 군읍에 보내어 농상(農桑)을 권하였고 또 백제에서는 시조 은조왕 14년에 권농일을 정하고 다루왕(2代) 6년에는 남부 여터 주군(州郡)에 쌀농사를 처음 시작했다한다.

고려시대에는 왕건 태조가 여러가지 권농정책을 폈으며 성종 2년에는 왕이 친히 적전(籍田)을 경작하고

□ 제언 : 권농일의 의의 □

신농(神農)과 후직(後稷)을 모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조시대에 들어와서는 선농단(先農壇)을 설치하여 임금이 친히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가 농사가 잘 되라고 제사를 지내고 삼국시대부터의 예에 따라 사직단(社稷壇)을 세워 토지신(土地神)과 곡신(穀神)에게 풍년이 들도록 기우제(祈穀祭)와 기우제(祈雨祭)등을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을 중시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고 중국 고전의 하나인 서경(書經)의 홍범조(洪範條)에서는 농용팔정(農用八政)이라 하여 농업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식생활 ▲화폐경제 ▲조상에 대한 제사 ▲건설에 관한 경제 ▲교육 ▲치안 ▲손님대접 ▲의적으로부터의 방어등 8가지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농정을 모든 정사에 앞세워왔다.

시대가 변하고 통치자가 바뀌어도 농사는 변함없이 중요시되고 권장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선진외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농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요한 원인은 농사 그 자체는 중요시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을 천시한 실업천시의 사상이 아리었나 생각된다.

이런 사고방식때문에 농업발전은 결정적으로 장애를 받아 칙제의 눈에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조초기 정도전(鄭道傳)이 적전(籍田) 설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농은 만사의 근본이며 적(籍)은 권농의 근본이므로 인군(人君)이 몸소 적전을 갖고 농을 먼저 하는 것에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인군이 존귀한 몸을 가지고 친히 이것을 행하는데 하물며 하민(下民)의 비천한 몸으로 어찌 갈지(耕)얌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상들이 농사는 중요시했지만 농사짓는 농민은 하민으로 천시했던 그릇된 사상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요즈음 근대화되었다는 농촌에 가 보면 과거 농민들이 멸시받던 한(恨)이 피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탓인지 자식들에게만은 농사를 대로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젊고 유능한 청소년들은 될 수 있으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 직장을 찾고 농촌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농촌에는 대부분 나이 많고 노쇠한 노인이나 부녀자·어린이들이 남아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인구는 5일마다 1백 1만명이상이 늘어 仁川시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기고 우리나라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우리 조상은 농업을 중시하여 왔으나 요즈음 근대화 되었다는 농촌에서는 자식들에게만은 농사를 대로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도 1년에 7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해마다 大田시만한 인구가 더 붙여 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1940년에 90여만이던 인구가 이제 8백만을 넘어 전체인구의 5명중 1명은 서울사람인 셈이 되었다.

이처럼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세계농산물생산은 「한계증산」만을 기록했을뿐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식량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美國을 휩쓴 한발로 세계곡물생산은 1936년이후 50년만에 최악의 흉작을 기록, 세계시장의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蘇聯·中

共역시 이상저온과 장마로 흉년을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도 이상저온과 냉해로 연 3년째 흉작을 맞아 국민모두가 크게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동안(1970~1979) 세계 1백 6개의 개발도상국들중 58개국의 식량생산증가율이 모두 인구증가율을 뒤따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자연히 곡물확보를 위한 경쟁탈전은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세계곡물가격은 치솟는 악순환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식량수급의 불균형은 자원 「내셔널리즘」을 촉발시켜 73년 제 1차 「오일쇼크」이후 미국에 의해 반

□ 제언 : 권농일의 의의 □

번히 거론돼온 식량무기화추세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앞으로 개발도상국들은 돈이 있어도 곡물이 모자라서 곤경을 겪어야 할 형편이고 석유무기화를 계기로 빚어지고 있는 식량무기화가 하나의 가상이 아닌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국이면서 식량자급을 못이룬 우리나라의 사정은 딱하거만하다.

참으로 민족의 번영을 위해선 식량자급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만 하겠다.

일찌기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이 양곡을 무상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부하여 식량자급에 힘쓰고 돈만 벌면 농업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영국이 두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후 가장 열성적으로 농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이스라엘이 경계를 따지지 않고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가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고 국토가 좁아 180평의 농토에서 국민 1인의 모든 식량을 생산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식량증산을 위해 경지면적을 확대하여 하늘바라기 논의 마지막 한평까지 갈아 모를 심고 과학영농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온 농사는 중요시하지만 농사일을 직접 감당하는 농민을 천시하던 뿌리깊은 사상을 깨끗이 씻어내고 농사짓는 사람을 존경하고 대접 해주며 농민이 뜨거운 들판에서 흘리는 땀 한방울의 고귀함과 한톨의 쌀알도 황금처럼 소중한 여기는 국민정신의 배양이라고 생각한다.

증산을 제1생산, 근검·절약을 제2생산이라고 한다면 농민을 존경하며 한톨의 곡식의 고귀함을 진실로 인식하는 국민정신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제3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농사를 중시하여 권농행사를 해왔지만 아직도 식량자급을 못이룬 원인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 봐야겠다.

권농일을 한낱 형식적인 모내기행사를 하는 날로 착각하지 말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농촌후계자가 대접을 받으며 농촌에 안주하여 즐거히 농사를 짓고 도시의 인구가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사회풍토와 국민정신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더욱 의의가 클 것이다.